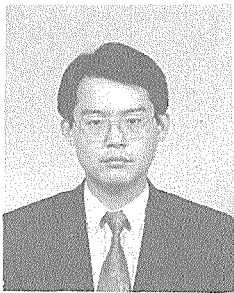


기후변화협약과 석유산업의대응



姜景模
〈경인에너지 업무팀〉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UR 태풍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GR이라는 뉴라운드가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특히, 각종 국제환경협약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평가되어지던 기후변화협약이 지난 3월 21일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정부와 기업들은 GR 태풍의 상륙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영향 및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촉발된 지구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UN기구를 통한 환경규제협약(안)을 마련하고, '92년 6월 리우회담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정식으로 채택되어 50번째 국가의 가입일('93. 12. 21. ; 우리나라의 경우 '93. 12. 12. 47번째 가입)로부터 3개월 이후에

자동 발표토록 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대기중에 누적되어 지구온도 상승을 야기시키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프로판등)의 배출량을 억제시켜 대기중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고, 이를 위해 석탄, 석유등 화석연료의 사용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누어 의무사항을 달리 정해놓고 있다. 선진국들은 2000년도까지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1990년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고, 에너지세나 탄소세 제도등을 도입하고, 이를 재원으로 환경보호 사업과 후진국 지원을 하도록 하며, '94년 9월까지 각국의 온실가스 통계와 국가 이행사항을 가입국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개도국은 '97년까지 보고하도록 하는등 다소 완화된 의무조

항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서 일단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96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라 선진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서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와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총 에너지 수요중 석유라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93년 기준으로 약 60% 정도나 되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석유부분이 기후변화협약의 영향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석유를 주 원료로 하는 석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이 국내 석유산업에 미칠 영향으로는 장기적으로 석유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연료 대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질유의 수요 감소로 나타나 국제석유시장에서 유종간 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선진국들의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등 화석연료 수요억제 정책은 세계 석유시장의 수급구조를 변화시키고 소비국, 산유국간의 석유가격 인상경쟁을 야기시켜 국제 석유시장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어느 경우든 국내 석유산업에는 심각한 위협요인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석유산업의 대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국제 원유생산의 증질화, 국내 수요의 경질화·저유황화 경향등 석유 수급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정제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질유 분해·탈황시설등 정제시설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육성될 필요가 있다. 시설 고도화 추진에는 막대한 재원의 부담이 필요하나, 석유산업의 과도한 이윤 규제에 따른 저조한 수익률로 인해서 투자재원의 내부조달의 어려움 등이 따르므로 정부는

첫째, 국제 원유생산의 증질화, 국내 수요의 경질화·저유황화 경향등 석유 수급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정제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질유 분해·탈황시설등 정제시설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육성될 필요가 있다.

분해·탈황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석유사업기금 융자등의 지원과 저유황유와 고유황유간의 가격차이를 확대시켜 시설투자에 대한 유인을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 석유가스전 개발등에 적극 참여해 에너지의 공급 안정성 확보와 국제 석유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는 상하류 부문의 수직적 계열화와 청정휘발유 개발투자, 천연가스 투자, 휘발유 대

체연료 개발투자, 에너지 고효율기기 개발투자 등 종합 에너지회사로서의 전환을 통해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장기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세째, 국제표준화기구(ISO) 주관 하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환경표준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통상규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진국의 환경표준 등의 환경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파악함은 물론, 국내외적 파급 효과의 정확하고 빠른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후변화협약으로 대표되는 그린라운드는 국제화와 더불어 다가오는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주요한 국제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환경규제의 한 단계이며, 앞으로 보다 많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가 발생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환경 개선, 에너지 효율개선 분야는 미래 최고의 성장산업, 수출산업으로 부상할 것이고, 이는 석유산업 도전과 기회라는 양면성을 줄 것이다. 한국의 석유산업의 성장 기반 구축은 환경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를 통해서 다가오는 21세기에 국내 에너지의 안정 공급의 주체로써 국제 경쟁력, 위기대응력을 구비한 건실한 에너지 기간산업으로의 진입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